

식물과 사랑 ① 애기슬나물 Galium pusillum

초원을 적시는 황금빛 향기

손자은(평강식물원 가든관리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위치한 평강식물원은 12가지 테마가든의 진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18만여평의 부지에 고귀하고 희귀한 매력! 고층습지, 물과 식물의 어울림! 고산습원, 자연 그대로의 정원! 들꽃동산, 희귀식물들의 향연! 암석원, 한 폭의 수채화 풍경! 연못정원, 생명의 신비가 가득한 생태보존공간! 습지원, 백두대간에 흐드러진 우리 야생화! 자생식물원, 녹색빛 이끼가 전하는 휴식공간!

이끼원, 전설을 품고 피어나는 꽃! 만병초원, 순백의 비밀정원! 화이트가든, 싱그러움 만남이 기다리는 곳! 고사리원, 잔디카펫을 거니는 여유로움! 잔디광장으로 구성돼 있다. 본지는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소개하고 식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인지하여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한라산 정상부근에서 백목련 근처 초원이 고향인 애기슬 나물은 평강식물원의 암석원에도 자리 잡아 7월초부터 노랑 빛 바탕의 모든 식물들이다. 슬나물과 같지만 모든 부분의 크기가 작아 '애기슬나물'이라 한다. 키가 작기 때문에 쓰러



지지 않아 관상 가치가 높다. 마디에 둘러싼 잎은 솔잎처럼 가늘고 원줄기에서 8개씩 둘러싼다. 노란 꽃은 향기가 진해서 먼 곳에서도 금방 느낄 수 있고 이 꽃의 꿀은 수많은 곤충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슬나물은 전초를 약재로 하지만 특히 뿌리를 쓴다. 해독, 해열, 피아기에도 방부 효과가 있어 상처나 부열, 간염, 편도선염 등 세균성 질환에 쓰인다. 전초를 달여 마시거나 소주에 우려내어 마신다. 슬나물은 꼭두서니과 식물로 염

료로도 쓰인다. 꽃에서는 황색염료를 뽑아 종이를 물들이는데 쓰고 뿌리를 우려내면 적색염료를 얻을 수 있다. 운동 후나 오랫동안 걸어 발이 부었을 때 슬나물 뿌리 끓인 물을 발에 담그면 잘 낫고, 잎과 꽃, 줄기에도 방부 효과가 있어 상처나 종기, 발레에 물렸을 때 줄기와 함께 뿌리를 썰어 붙이면 잘 듣는다. 문의: 평강식물원 031-531-7750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여성으로서 사회역할 새롭게 하자’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 정기모임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는 7월7일 영북면 산정리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박해자) 영북면지부(지부장 강기숙)는 7월7일 오후5시 영북면 산정리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주부명예기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여성으로서 사회 역할을 좀더 새롭게 하자는 의지를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는 격려간격으로 모임을 갖고 영북면지부의 활성화는 물론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의결하고 포천신문을 통해 우리사회가 좀더 바르게 세워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모아 나가자고 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박해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은 “새로운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좀더 자기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북면지부 총무에 김순애 주부명예기자를 선출하고 강기숙 지부장을 중심으로 영북면지부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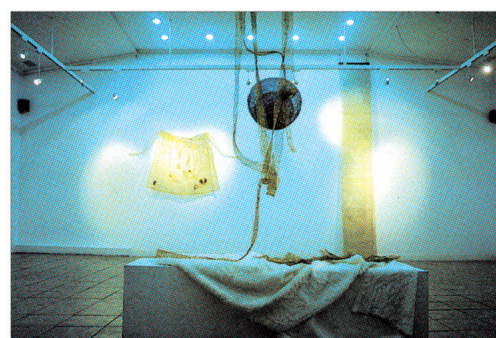
한편, 이날 회의를 준비하고 영북면지부장을 역임한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로서 부단장은 “영북면 식구가 많아진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멋진 주부명예기자로 성장해 나가는 지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입 명예기자와 기존 명예기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겸한 이날 모임은 영북면 발전의 새로운 초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紙上갤러리 ① 그림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상징

원정희의 My story 2005(어머니의 대지)



원정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생명이 탄생되는 과정을 철저히 관화로 표현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되는 인생의 과정, 다시 말하면 여인의 일생에 대한 문제를 자신이 기억하고 경험한 삶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 황금귀리 철사로 바느질 하듯 엮어 만든 앞치마, 저고리, 길게 늘어진 끈은 한번 엮어지면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인과성(因果性)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생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정자와 난자의 착상, 자궁구의 원형의 겹침, 대지의

상징에 이르기까지 한 공간 안에 하늘과 땅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연결한 수직의 맺줄은 탄생과 삶을 포괄한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기쁨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어머니의 참 모습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생명을 잉태하여 피어나게 하는 것! 이는 진정 우주의 섭리를 몸으로 받드는 여자의 찬미이다. 작품 '나의 이야기'는 골수에 각인된 어머니의 맛과 향기를 드러낸 생명에 대한 예의며 의식이다. 이 의식 속에서 작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내일을 꿈꾼다. 꿈이 꿈으로 남지 않고 현실화 되는 것은 어머니이며 동시에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다. 황금빛 대지에 그물망을 짜던지는 것으로 땅과 하늘을 합일하려는 이 땅의 어머니를 기억케 한다. 글/ 강구원(화가, 계간비주얼)

특별인터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성남 의원

“MOU 체결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리해야”

급격한 도시개발 보다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도시개발 중요

포천시의회 200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성남(사진) 의원을 만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꼭 이것만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은?

2006년 이후 MOU 체결건수가 모두 12건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무산이 되었으며 특히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유치의 건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예원예술대학교가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그들의 기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이며 예원예술대학교 또한 무리하게 시유지를 무상으로 받으려는 욕심은 너무 과한 것이다.

따라서 포천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출석시켜 그동안 행정력 낭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신규 골프장 토목공사현장에 대한 수해예방대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포천시가 주관하는 공사 중에 부실공사가 많다. 예를 들어 이동교육문화센터 등 공공건물에 부실공사가 많은 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1개 부서가 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송우택지개발지구 개발 이후 포천시와 정산이 끝나 공영주차장 4곳을 신설할 수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각종 장비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지적했다.

보건소는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꽃묘생산에 고급인력을 투입하지 말고 농업인을 위한 분야의 업무에 충실할 것도 지적했다.

또한 가로수도 토질에 맞



않는 것을 식재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각 부서별로 발주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만 발주할 수 있도록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잘 한 사업이 있다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다. 작년 지적사항을 잘 해결하고 운영을 잘해 호응이 아주 좋다. 노인인력을 이용한 한자공부를 실시해 전국대회에 나가 좋은 상을 받는 등 아주 고무적이다. 또한 150명 이하 학교에 무료급식 사업도 아주 잘 된 사업으로 더욱 확대해 학생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포천의 희망사연인 예코디자인스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바라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란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느꼈다면?

중선거구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원이 줄어 분야는 많고 질의할 의원이 없어 많은 양을 소화하려고 하다보니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소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해 좀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천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은?

포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고 휴양도시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급격한 도시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시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시민 여러분이 뽑아준 대변자로서 부끄럼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사장에 모두 참석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행사장에 나가는 시간에 사업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할 수 있게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농협 하재인 상임이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사

존경하는 포천농협 양명관 조합장님, 농협 임직원님과 대의원님,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3대 상임이사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포천농협과 조합원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포천농협은 포천시의 2,700여명의 거대한 농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전문 경영자로서의 막중한 임무에 책임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농협에 30년 세월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7~80년대 경력이 어려웠던 시기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포천농협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포천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200여 조합원님께 실익을 줄 수 있도록 완전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개선을 통해 농협인직원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과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편의시설은 과감히 확충하겠습니다. 사업 실적과 성과위주의 조직관리,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통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발전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선진 농협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 화합과 단결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조합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임원님, 대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항상 대화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조합원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천농협이 꼭 필요한 농협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아섬유 대표이사 박노현



하재인 (河在仁)

- 생년월일 : 1951. 5. 17
- 본 적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220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52-78
- 학 력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주고등학교
- 경 력
 - 농협근무 29년(포천, 소울, 일동, 영중, 관인)
 - 포천농협 비상임 이사 (2005년4월~2008년5월)
 - 포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1999년~현재)
 - 포천시 초·중·고 운영위원 협의회장(2007년~현재)
 - 경기도 교육청 중·고등학교 평가위원(2006년~현재)
 - 한국 걸스카우트 경기북부 포천지구 연합회 이사(현)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 지구협의회장(현)
 - 포천신문사 자문위원(현)
- 수 상
 - 1973.04.28 육군통신학교 학업우수 학교장 준장신동선
 - 1975.06.13 육군대학 모범장병 총장 소장 양인석
 - 1990.10.30 입무추진 우수 경기도 지회장 정민현
 - 1991.01.25 새농협 운동 중앙회장 한호선
 - 1996.02.14 입적우수 중앙회장 원철희
 - 2003.01.20 농민봉사단 관인농협 조합원 일동
 - 2004.05.03 자랑스런 경기농협직업상 최희정 박재근
 - 2008.02.15 자랑스런 경북인상 경북대학장
 - 2008.04.2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의정부지법경찰청 지검장 박태규